

##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C-R-CRF) 개발과 타당화

홍 상 황<sup>†</sup>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KPI-C-R)의 문항을 아동보고형으로 수정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4~6학년 1,5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ICN척도를 제외한 13개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62~.85, 내적 합치도는 .65~.85이었고, 129명으로 대상으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86으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10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9개 타당도지표와 부모평정용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아동인성검사, 신뢰도, 타당도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 상 황 / 진주교육대학 교육학과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FAX : 055-740-1290 / E-mail : shhong@cue.ac.kr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는 임상장면에서 아동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 진단하고 학교장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김승태 등, 1997). 이 검사는 최근 6개월 동안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현실접촉 등에 대해 평정하여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255문항, 16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검사는 아동평가와 관련된 문헌들로부터 아동의 정신병리나 적응 잠재력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국내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검사를 번안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검사보다 더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KPI-C가 개발된 이후 정신과적 임상장면과 학교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정신과 표집의 프로파일 유형(정욱, 홍창희, 1997), 학습장애아동의 정서와 행동특성의 분류(김근향, 홍창희, 김지혜, 1997), ADHD 척도의 개발(하송미, 1997),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의 변별도구로서의 유용성(장은진, 강민아, 정철호,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성격성향(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아동의 자아탄력성(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이지연, 황순택, 이수경, 2001), 자아탄력 척도의 타당도(구형모와 황순택, 2001),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간 관계(김윤희와 황순택, 2003)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KPI-C가 개발된 이래로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임상적 타당도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판(KPI-C-R)을 제작하게 되었다(김지혜, 홍창희, 황

순택, 조선미, 인쇄중): (1) 현장에서 이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임상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적응 영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AUT(Autism) 척도를 삭제하고 HPR(Hyperactivity), PSY(Psychosis), VDL(Verbal development)와 PDL(Physical development) 척도의 문항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중복 문항을 줄이고 문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2) 전체 문항의 수를 255문항에서 179문항으로 축소하여 실시시간을 줄였으며, (3) 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4)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더라도 해석적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척도의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5) 여러 척도에서 중복 사용되는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각 부적응 영역의 변별적 측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6) 예/아니오 방식의 2점 척도 대신 4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실제 응답자들이 예/아니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보고가 적지 않았고, 특정 측정영역에서의 정도의 차이를 반응에 반영하는 것이 심리학적 속성의 측정에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반응방식을 2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바꿈에 따라 문항수의 감소에 따른 척도 원점수 폭(range)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장점도 감안하였다.

KPI-C-R은 원래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검사이다. 이렇게 부모평정용으로 검사를 구성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 지각,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

역을 기술하는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제한적이어서 정확하게 보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은연 중에 가정되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검사들은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게 된다. 부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가장 일차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나 평정은 부모의 정신병리와 성격 같은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Richters, 1992). 또한 아동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나 증상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외부 평가자가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내성적 자기보고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는 Youth Self-Report(YSR, Achenbach, 1991), Behavioral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Self-Report of Personality(BASC-SRP, Reynolds & Kamphaus, 1992), Personality Inventory for Youth(PIY, Lachar & Gruber, 1992)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아동용 자기보고형 성격검사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 자기개념과,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단일 차원의 여러 가지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들도 많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chenbach 등(1987)은 아동의 임상 평가에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다측적 진단 또는 평가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교사의 평정, 인지적 평가와 신체상태에 대한 확인 및 아동의 자기보고나 관찰 결과를 모두 통합하여 평가에 반영할 때 임상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평가에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외부 평정자의 판단

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 자신이 경험하는 매우 주관적인 심리적 현상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아동평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제공한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양도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자기보고와 다른 관찰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검사를 사용하던 간에 부모나 교사가 평정한 결과와 아동이 자기보고한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원래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문항을 자기보고 문항으로 수정하여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봄으로써 개정판 한국형 아동인성검사의 아동보고형(KPI-C-R-CRF, children-report form)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방 법

### 대상

KPI-C-R-CRF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1,624명을 대상으로 12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특히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9개 타당도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이 많아서 표 1과 같이 12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16부, KPI-C-R-CRF 179개 문항 중 9개 문항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 33부, 총 49부를 제외한 총 1,575부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1,575명은 남학생 754명(47.9%), 여학

생 821명(52.1%)이었고 평균연령은 10.75세( $SD = .92$ )이었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4학년 498명(남 238, 여 260명, 나이 9.73세( $SD = .45$ )), 5학년 540명(남 263, 여 277명, 나이 10.72세( $SD = .44$ )), 6학년 537명(남 253, 여 284명, 나이 11.73세( $SD = .44$ ))이었다.

KPI-C-R 자기보고형과 부모평정용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15명에게 KPI-C-R 자기보고형을 실시하고 그 어머니에게 부모평정용을 실시하였다(표본 X). 본 연구는 부모평정용으로 만든 KPI-C-R의 척도구성과 문항내용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기보고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항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척도수준에서도 아동

과 어머니 간의 평정 일치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평정용 검사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낮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평정결과가 더 타당하다(Fitzgerald, Zucker, Maguin, & Reider, 1994)는 결과에 근거해서 가급적이면 어머니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였다.

도구

KPI-C-R 부모평정용

김지혜 등(인쇄중)이 개정한 한국아동인성검사(KPI-C-R)를 사용하였다. KPI-C-R은 무응답(?), 검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 표 본            |                |                |                |                |                |                |                |                |                |                |                |
|-------------------|----------------|----------------|----------------|----------------|----------------|----------------|----------------|----------------|----------------|----------------|----------------|----------------|
|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X              | XI             | XII            |
| <i>n</i>          | 126            | 125            | 125            | 127            | 121            | 125            | 124            | 128            | 124            | 151            | 129            | 299            |
| 여학생수(%)           | 66<br>(52.4)   | 64<br>(51.2)   | 66<br>(52.8)   | 58<br>(45.7)   | 55<br>(45.5)   | 56<br>(44.8)   | 72<br>(58.1)   | 78<br>(60.9)   | 70<br>(56.5)   | 84<br>(55.6)   | 57<br>(44.2)   | 151<br>(50.5)  |
| 평균연령( <i>SD</i> ) | 10.89<br>(.90) | 10.94<br>(.83) | 10.82<br>(.97) | 10.99<br>(.81) | 10.85<br>(.95) | 10.76<br>(.95) | 10.86<br>(.88) | 10.88<br>(.88) | 10.90<br>(.84) | 10.75<br>(.93) | 10.85<br>(.94) | 10.34<br>(.90) |
| 학년별 학생수           |                |                |                |                |                |                |                |                |                |                |                |                |
| 4학년               | 29             | 27             | 30             | 30             | 38             | 40             | 28             | 29             | 28             | 50             | 40             | 170            |
| 5학년               | 49             | 48             | 46             | 47             | 37             | 39             | 47             | 49             | 49             | 49             | 40             | 79             |
| 6학년               | 48             | 50             | 49             | 50             | 46             | 46             | 49             | 50             | 47             | 52             | 49             | 50             |

주 1. 12개 표본에 모두 KPI-C-R-CRI를 실시하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개 표본에 한 가지 검사를 더 실시하였음. 표본 I은 K-YSR, 표본 II는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표본 III은 아동용 자기지각검사, 표본 IV는 교우관계검사, 표본 V는 아동용 우울척도, 표본 VI은 아동용 불안척도, 표본 VII은 스펜스 아동용 불안척도, 표본 VIII은 가족관계척도, 표본 IX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질문지, 표본 X은 KPI-C-R부모평정용을 부가적으로 실시하였음. 표본 XI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이고, 표본 XII는 KPI-C-R-CRF만 실시하였음.

주 2. 표본 X은 아들에게는 아동보고형, 아동의 부모에게는 부모평정용을 실시하였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정은 각각 131부, 20부임. 부모의 평균 연령은 38.80세( $SD = 4.85$ ), 교육수준은 대졸 9명, 고졸 5명, 중졸 8명이었음.

사-재검사(T-R), 허구(L), 빈도(F) 척도 등 4개의 타당성척도와 자아탄력성척도(ERS) 및 11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는 총 179문항이다. 임상척도들은 발달적인 면을 측정하는 언어 발달(VDL), 동작발달(PDL) 척도, 정서적인 면을 측정하는 불안(ANX), 우울(DEP), 신체화(SOM),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DLQ), 과잉행동(HPR) 척도, 정신병적인 면을 평가하기 위한 정신증(PSY) 척도 및 가족관계(FAM)와 사회관계(SOC) 척도 등의 관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에서는 그렇다, 아니다의 2점 평정척도였으나 개정판에서는 문항수가 줄어들어 다른 척도 원점수의 범위가 줄어들 것을 방지하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다.아니다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보호자들의 보고가 많고, 이분법적으로 평정하게 되면 각 문항의 내용에 약간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니므로 반응하는 경향이 많다고 판단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평정척도로 수정되었다.

#### KPI-C-R-CRF의 문항수정

초등학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인 초등학교 4·6학년 담임 선생님 3명에게 연구자가 KPI-C-R의 목적, 척도의 구성과 측정영역 등을 소개하고 척도별로 문항을 분류하여, 부모평정용 문항을 최대한 의미를 같도록 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되면 이해할 수 있게 자기보고형 문항으로 수정해달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경우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항을 쉽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문항의 의미와 내용뿐만 아니라 문항이 의미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정하였다. 4학년을 지정한 이유는 문항수정 작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초

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문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초등교사가 먼저 문항을 수정한 후 연구자와 같이 모여서 문항 수정작업 하였다.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진태경, 2002)를 참고하여 문항에 사용된 단어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1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와 3명의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 후 KPI-C의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수정한 문항이 부모평정용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및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문항을 재수정 하였다.

#### 타당도지표

아동의 성격과 정신병리 영역에서 자기보고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KPI-C-R-CRF 척도들이 이론적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와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정신병리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다른 검사와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안정성, 책임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변별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Achenbach(1991)가 11-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 등(2001)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능력척도는 사회성, 학업 수행 및 총 사회능력 척도 등 3개 척도, 문제행

동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등 8개 척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남자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자해/정체감문제척도와 총 문제행동점수를 포함하여 모두 12개 척도, 1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0(전혀 없다), 1(자주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 $\alpha$ )는 .63~.85이었고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사회능력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자 평균 .59, 여자 평균 .38,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남자 평균 .60, 여자 평균 .32이었다.

####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이상로 등(1992)이 표준화한 초등학교 고학년용(4~6학년용)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10가지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1개의 타당성 척도,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등 7개의 기술척도, 우울경향, 불안경향 등 2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예-아니오의 2점 척도,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향성 만을 측정하는 26개 문항을 제외한 총 2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2~.89, 3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89 이었다

#### 아동용 자기지각검사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

SPPC는 Harter(1985)가 아동의 유능감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아동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생활영역인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행동 등 5개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self-worth) 영역 등, 총 6개 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배주미, 2000). 이 도구는 아동의 실제 능력이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각 문항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는 진술문을 읽어보고 아동 자신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한 후, 다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약간 그런지 또는 매우 그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주미(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배주미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73~.84, Harter(1985)의 연구에서는 .71~.8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총점을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수집한 12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6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이었다.

####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CDI는 Kovacs와 Beck(1977)이 성인용 우울척도를 8~13세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간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주는 정도를 0~2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1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7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 아동용 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CMAS는 Reynolds와 Richmond(1978)가 Castenada 등(1956)이 개발한 아동용 표현불안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MAS)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개정한 것이다. 이 검사는 특성불안의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사용가능하며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28문항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척도(lie scale)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1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7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스펜스 아동용 불안장애척도(Spence Children's Anxiety Scale, SCAS)**

SCAS는 분리불안,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는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고(Spence, 1998) 총 38개 문항에 대해 0~3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3~.83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8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가족관계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FES)**

FES는 Moos와 Moos(1981)가 아동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관계, 개인 성장, 체제 유지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가족의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야자(198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세 가지 차원 중 관계차원의 응집력, 표현 및 갈등의 3영역을 측정하기 위

한 27문항을 선택하여 영역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응집력 영역의 9개 문항은 문항 의미가 분명하고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67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표현력과 갈등 영역의 문항은 문항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고 문항의 의미가 가족간의 표현력과 갈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각각 .35, .32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집력 문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Questionnaire, CPIC)**

CPIC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 및 Fincalm(1992)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등, 8개 영역에 대해 3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갈등의 빈도(6문항), 강도(7문항), 해결(6문항), 부모 갈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지각된 위협(6문항)을 측정하는 25문항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4영역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6, .81, .63,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각각 .74, .78, .83, .83이었다.

**교우관계검사**

김형태(1989)가 친구의 유무와 신뢰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친구와의 공동활동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교우관계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에 대해 0~3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반분 신뢰도와 3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5,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 분석

부모평정용으로 구성된 문항을 아동보고형으로 수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전체상관 및 내적 합치도를 고려하여 척도별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비일관성척도(ICN)를 구성하고 문항의 시인율을 검토하여 빈도척도(F)를 재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고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성과 연령에 따른 점수차이를 비교하였고, 타당도검증을 위해 아동의 자기보고와 부모평정 간의 일치도를 구하고 KPI-C-R의 아동보고형의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있는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을 구하였다.

## 결 과

### 최종 문항선정과 척도구성

#### L척도

L척도는 아동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점이나 약점을 부인하여 자신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려는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시인하는 빈도가 높은 문항에 대해 아니오 방향으로 응답할 경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보고형으로 수정한 15문항의 문항평균(시인율)을 계산하여 그 값이 낮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5문항의 문항평균은  $1.69(SD=.40)$ , 범위는 1.29~2.30, 중앙치는 1.74로 시인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항은 없었다. 이러한 15문항의 문항간 상관, 교정된 문항-전체상관 및 내적 합치도를 고려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보고형으로 수정한 원문항을 그대로 선정하였다.

#### 비일관성척도(ICN)

수검자의 반응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일관성(inconsistency; ICN)척도를 구성하였다. 검사를 구성할 때 반응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체 문항에 걸쳐 의미가 유사한 문항이나 상반된 문항을 중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KPI-C-R과 같이 이미 표준화된 검사에서는 구성된 검사문항 중에서 문항 내용이나 의미가 유사하거나 상반된 문항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항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문항쌍을 찾아내고 문항의 위치를 검토하여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전체 문항의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을 찾아내었다. 비일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항쌍이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dispersion)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쌍 중에서 인접해 있는 문항쌍을 제외하고 문항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여 총 10개 문항쌍을 도출하였다. 10개 문항쌍간의 평균 상관은  $.45(SD=.03)$ , 범위는 .41~.53, 중앙치는 .45이었다.

**빈도척도(F)**

F척도는 정상집단에서 그렇다고 반응하는 시인빈도가 낮은 문항으로 구성해야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문제적 수검태도나 정신적 혼란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아동보고형으로 수정된 15문항의 평균 시인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8개 문항은 평균 시인율이 높게 나타나서 시인율이 .30이하로 낮은 7개 문항을 대체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15문항의 시인율 평균은 .29(SD=.17), 범위는 .06~.64, 중앙치는 .24이었다.

**자아탄력성척도와 임상척도**

각 척도별로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거나 역상관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개별 문항을 빼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과 개별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증가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척도(ERS) 3문항, 언어발달척도(VDL) 1문항, 운동발달척도(PDL) 4문항, 우울척도(DEP) 1문항, 비행척도(DLQ) 2문항, 사회성척도(SOC) 1문항, 정신병척도(PSY) 1문항 등 총 13문항은 각 척도 내에서 다른 문항과의 상관계수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낮고 내적 합치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이었다. 13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은 해당 척도에서는 삭제하였지만 다른 척도와 중복되어 있어서 11문항을 제외하였고, 여기에 부모평정용 문항에서 아동보고형 문항으로 수정할 때 동일한 의미로 수정된 2개 문항과 빈도척도에만 채점되다가 빈도척도 구성에서 제외된 2문항 등, 총 15문항을 삭제하였다.

**신뢰도**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표 2와 같다. 비

표 2. 척도의 신뢰도 계수

|     | 문항수    | 반분 신뢰도   | 내적 합치도   | 검사-재검사 신뢰도 |
|-----|--------|----------|----------|------------|
| L   | 15(15) | .72(.75) | .74(.79) | .77        |
| ICN | 20     | .40      | .67      | .40        |
| F   | 15(15) | .71(.64) | .73(.71) | .83        |
| ERS | 19(22) | .81(.67) | .80(.79) | .78        |
| VDL | 10(11) | .72(.71) | .71(.73) | .75        |
| PDL | 11(15) | .62(.62) | .65(.68) | .77        |
| ANX | 15(15) | .76(.74) | .82(.76) | .77        |
| DEP | 14(15) | .77(.65) | .75(.73) | .82        |
| SOM | 15(15) | .80(.71) | .80(.78) | .81        |
| DLQ | 13(15) | .68(.76) | .71(.81) | .75        |
| HPR | 19(19) | .85(.64) | .85(.75) | .86        |
| FAM | 18(18) | .68(.79) | .79(.76) | .83        |
| SOC | 13(14) | .69(.71) | .74(.78) | .77        |
| PSY | 18(19) | .81(.67) | .84(.72) | .80        |

주 1. 문항수 칸의 ( )안은 원문항수이고, 척도의 문항수를 모두 합하면 215문항이지만, 척도 또는 3척도에 중복되는 31문항과 비일관성문항 2(문항)을 빼면 총 문항수는 164문항임.

주 2.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4~6학년 N=1,57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n=129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주 3.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 )안은 KPI-C 부모평정용 표준본 N=2,386의 결과임(홍창희 등, 2001).

일관성척도를 제외한 반분신뢰도는 .62~.85범위, 중앙치 .72, 내적 합치도는 .65~.85범위, 중앙치 .75이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4~6학년 129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그 결과 ICN척도를 제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86범위, 중앙치 .78로 양호하였다.

**성과 연령에 따른 척도점수의 차이**  
 14개 척도점수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별; 남, 여) × 3(연령;

4, 5, 6학년)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다변량분석 통계치인 Wilks's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 전 체             |                 |                 | 4학년             |                 |                 | 5학년             |                 |                 | 6학년             |                 |                 |
|------------|-----------------|-----------------|-----------------|-----------------|-----------------|-----------------|-----------------|-----------------|-----------------|-----------------|-----------------|-----------------|
|            | 남<br>(n=754)    | 여<br>(n=821)    | 전체<br>(n=1,575) | 남<br>(n=238)    | 여<br>(n=260)    | 전체<br>(n=498)   | 남<br>(n=263)    | 여<br>(n=277)    | 전체<br>(n=540)   | 남<br>(n=253)    | 여<br>(n=284)    | 전체<br>(n=537)   |
| <i>L</i>   | 24.83<br>(5.89) | 26.11<br>(5.36) | 25.50<br>(5.65) | 25.09<br>(5.81) | 27.15<br>(5.50) | 26.17<br>(5.74) | 25.26<br>(5.59) | 25.36<br>(5.27) | 25.31<br>(5.42) | 24.14<br>(6.22) | 25.88<br>(5.20) | 25.07<br>(5.75) |
| <i>ICN</i> | 6.21<br>(2.88)  | 5.18<br>(2.60)  | 5.67<br>(2.79)  | 6.69<br>(2.89)  | 5.67<br>(2.80)  | 6.15<br>(2.89)  | 6.30<br>(2.96)  | 5.20<br>(2.68)  | 5.73<br>(2.87)  | 5.68<br>(2.72)  | 4.72<br>(2.25)  | 5.17<br>(2.52)  |
| <i>F</i>   | 4.83<br>(4.45)  | 3.76<br>(3.58)  | 4.27<br>(4.06)  | 5.86<br>(4.93)  | 4.49<br>(4.05)  | 5.13<br>(4.53)  | 4.30<br>(4.10)  | 3.80<br>(3.55)  | 4.05<br>(3.84)  | 4.45<br>(4.22)  | 3.06<br>(3.00)  | 3.71<br>(3.69)  |
| <i>ERS</i> | 32.81<br>(7.86) | 33.95<br>(7.66) | 33.41<br>(7.76) | 32.39<br>(7.70) | 34.04<br>(8.09) | 33.25<br>(7.94) | 33.48<br>(7.50) | 33.97<br>(7.87) | 33.73<br>(7.69) | 32.53<br>(8.34) | 33.85<br>(7.05) | 33.22<br>(7.72) |
| <i>VDL</i> | 6.33<br>(3.76)  | 5.39<br>(3.16)  | 5.84<br>(3.49)  | 6.65<br>(3.80)  | 5.75<br>(3.33)  | 6.18<br>(3.59)  | 6.02<br>(3.50)  | 5.53<br>(3.30)  | 5.77<br>(3.40)  | 6.37<br>(3.97)  | 4.94<br>(2.81)  | 5.61<br>(3.47)  |
| <i>PDL</i> | 8.62<br>(4.33)  | 7.34<br>(3.89)  | 7.95<br>(4.16)  | 8.91<br>(4.63)  | 7.68<br>(4.16)  | 8.26<br>(4.42)  | 8.41<br>(4.04)  | 7.49<br>(3.87)  | 7.94<br>(3.98)  | 8.59<br>(4.35)  | 6.89<br>(3.63)  | 7.69<br>(4.07)  |
| <i>ANX</i> | 12.98<br>(7.04) | 13.53<br>(7.12) | 13.27<br>(7.09) | 13.29<br>(6.91) | 14.12<br>(7.94) | 13.72<br>(7.47) | 11.72<br>(6.18) | 13.65<br>(7.07) | 12.73<br>(6.72) | 13.97<br>(7.77) | 12.90<br>(6.34) | 13.40<br>(7.06) |
| <i>DEP</i> | 12.87<br>(6.11) | 12.26<br>(6.08) | 12.55<br>(6.10) | 13.37<br>(6.28) | 12.59<br>(6.67) | 12.97<br>(6.49) | 12.35<br>(5.67) | 12.22<br>(6.13) | 12.28<br>(5.91) | 12.93<br>(6.36) | 12.02<br>(5.46) | 12.45<br>(5.91) |
| <i>SOM</i> | 14.42<br>(6.88) | 14.23<br>(7.22) | 14.32<br>(7.06) | 15.01<br>(7.06) | 14.21<br>(7.46) | 14.60<br>(7.27) | 13.96<br>(6.33) | 14.58<br>(7.37) | 14.28<br>(6.89) | 14.34<br>(7.25) | 13.92<br>(6.88) | 14.11<br>(7.05) |
| <i>DLQ</i> | 11.72<br>(4.54) | 10.27<br>(4.22) | 10.96<br>(4.43) | 11.90<br>(4.85) | 9.78<br>(4.53)  | 10.80<br>(4.80) | 11.11<br>(4.40) | 10.67<br>(4.31) | 10.89<br>(4.36) | 12.18<br>(4.32) | 10.31<br>(3.78) | 11.19<br>(4.14) |
| <i>HPR</i> | 19.48<br>(8.74) | 17.81<br>(8.75) | 18.62<br>(8.78) | 20.36<br>(8.98) | 17.43<br>(8.87) | 18.87<br>(9.03) | 18.23<br>(8.00) | 18.90<br>(9.01) | 18.57<br>(8.58) | 19.97<br>(9.13) | 17.07<br>(8.32) | 18.43<br>(8.82) |
| <i>FAM</i> | 11.47<br>(6.28) | 10.12<br>(6.26) | 10.76<br>(6.30) | 11.97<br>(6.61) | 10.64<br>(6.33) | 11.28<br>(6.49) | 10.58<br>(5.88) | 9.92<br>(6.57)  | 10.23<br>(6.25) | 11.89<br>(6.29) | 9.86<br>(5.86)  | 10.82<br>(6.15) |
| <i>SOC</i> | 10.91<br>(5.21) | 10.59<br>(5.22) | 10.74<br>(5.22) | 11.69<br>(5.20) | 11.77<br>(5.59) | 11.73<br>(5.40) | 10.45<br>(4.96) | 10.21<br>(5.12) | 10.33<br>(5.04) | 10.65<br>(5.42) | 9.89<br>(4.78)  | 10.25<br>(5.10) |
| <i>PSY</i> | 13.04<br>(7.81) | 10.89<br>(7.23) | 11.90<br>(7.58) | 14.00<br>(8.02) | 11.82<br>(8.31) | 12.84<br>(8.24) | 12.21<br>(7.70) | 10.94<br>(7.27) | 11.56<br>(7.50) | 13.05<br>(7.67) | 9.99<br>(5.94)  | 11.40<br>(6.96) |

Lamda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별( $F(14, 1001)=10.387, p<.001$ )과 연령( $F(28, 2002)=4.428, p<.001$ )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F(28, 2002)=1.509, p<.05$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처럼 다변량 통계치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척도별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비교하였다

성별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14개 척도 중에서 L척도( $F(1, 1014)=14.126, p<.001$ ), ICN척도( $F(1, 1014)=51.139, p<.001$ ), F척도( $F(1, 1014)=19.243, p<.001$ ), VDL척도( $F(1, 1014)=19.317, p<.001$ ), PDL척도( $F(1, 1014)=26.707, p<.001$ ), DLQ척도( $F(1, 1014)=34.180, p<.001$ ), HPR척도( $F(1, 1014)=8.641, p<.001$ ), PSY척도( $F(1, 1014)=26.658, p<.001$ ) 등 8개 척도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에서 L척도는 여학생, 나머지 척도는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연령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ICN척도( $F(2, 1014)=7.877, p<.001$ )와 F척도( $F(2, 1014)=14.445, p<.001$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비교한 결과 ICN척도는 4학년과 5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4학년보다는 6학년, 5학년보다는 6학년의 점수가 더 낮았고, F척도는 4학년이 5, 6학년보다 높았고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DLQ척도( $F(2, 1014)=7.189, p<.001$ )는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과 있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DLQ척도점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5학년에서는 남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4학년과 6학년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타당도

##### 평정자간 일치도

척도점수의 아동과 부모 평정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151명의 부모(표 2)와 그 아동에게 각각 부모평정용과 아동보고형을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평정한 값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L척도  $r=.39, p<.01$ , ICN척도  $r=-.05, m$ , F척도  $r=.44, p<.01$ , ERS척도  $r=.34, p<.01$ , VDL척도  $r=.53, p<.01$ , PDL척도  $r=.18, p<.05$ , ANX척도  $r=.40, p<.01$ , DEP척도  $r=.24, p<.01$ , SOM척도  $r=.42, p<.01$ , DLQ척도  $r=.15, p<.01$ , HPR척도  $r=.40, p<.01$ , FAM척도  $r=.51, p<.01$ , SOC척도  $r=.43, p<.01$ , PSY척도  $r=.34, p<.01$ 이었다. ICN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척도의 일치도는 .15~.53범위, 평균 .37, 중앙치는 .40이었다.

##### 척도간 상관

1,57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척도점수 간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타당성척도에서 L척도는 ERS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DLQ( $r=-.74$ ), HPR( $r=-.68$ )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ICN척도는 ERS( $r=-.19$ )척도와 부적 상관, 나머지 척도와는 .20~.40 범위의 상관이 있었고, F척도는 ERS( $r=-.47$ )척도와 부적 상관, 나머지 척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특히 PSY( $r=.70$ ), VDL( $r=.63$ ), FAM( $r=.61$ ), DEP( $r=.60$ )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ERS척도는 다른 척도와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고 특히 DEP( $r=-.72$ ), SOC( $r=-.59$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9개 임상척도간에는 .20~.68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VDL척도는 PDL( $r=.59$ ), PSY( $r=.58$ )척도, ANX척도는 PSY( $r=.65$ ), DEP( $r=.61$ )척도, DEP척도는 SOC( $r=.68$ ), PSY( $r=.63$ ), SOM( $r=.58$ )척도, DLQ척도는 HPR( $r=.68$ ), PSY( $r=.61$ )척도와 비교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밝히기 위

표 4. 척도점수간 상관

|            | <i>L</i>       | <i>ICN</i> | <i>F</i>       | <i>ERS</i>     | <i>VDL</i>   | <i>PDL</i>   | <i>ANX</i>   | <i>DEP</i>   | <i>SOM</i>   | <i>DLQ</i>   | <i>HPR</i>   | <i>FAM</i>   | <i>SOC</i>   |
|------------|----------------|------------|----------------|----------------|--------------|--------------|--------------|--------------|--------------|--------------|--------------|--------------|--------------|
| <i>ICN</i> | -.30           |            |                |                |              |              |              |              |              |              |              |              |              |
| <i>F</i>   | -.47<br>(-.39) | .30        |                |                |              |              |              |              |              |              |              |              |              |
| <i>ERS</i> | .58<br>(.39)   | -.19       | -.47<br>(-.46) |                |              |              |              |              |              |              |              |              |              |
| <i>VDL</i> | -.49<br>(-.25) | .35        | .63<br>(.35)   | -.45<br>(-.39) |              |              |              |              |              |              |              |              |              |
| <i>PDL</i> | -.43<br>(-.23) | .34        | .49<br>(.27)   | -.30<br>(-.43) | .59<br>(.71) |              |              |              |              |              |              |              |              |
| <i>ANX</i> | -.44<br>(-.21) | .25        | .48<br>(.33)   | -.38<br>(-.41) | .42<br>(.16) | .48<br>(.22) |              |              |              |              |              |              |              |
| <i>DEP</i> | -.49<br>(-.28) | .33        | .60<br>(.51)   | -.72<br>(-.81) | .47<br>(.32) | .43<br>(.37) | .61<br>(.43) |              |              |              |              |              |              |
| <i>SOM</i> | -.39<br>(-.24) | .29        | .49<br>(.41)   | -.36<br>(-.35) | .37<br>(.09) | .37<br>(.15) | .52<br>(.37) | .56<br>(.45) |              |              |              |              |              |
| <i>DLQ</i> | -.74<br>(-.82) | .32        | .53<br>(.54)   | -.48<br>(-.45) | .49<br>(.27) | .40<br>(.21) | .43<br>(.21) | .48<br>(.31) | .36<br>(.26) |              |              |              |              |
| <i>HPR</i> | -.68<br>(-.70) | .34        | .51<br>(.59)   | -.39<br>(-.52) | .54<br>(.35) | .49<br>(.30) | .50<br>(.30) | .43<br>(.45) | .36<br>(.27) | .68<br>(.74) |              |              |              |
| <i>FAM</i> | -.47<br>(-.28) | .25        | .61<br>(.56)   | -.57<br>(-.42) | .45<br>(.19) | .28<br>(.19) | .29<br>(.24) | .54<br>(.44) | .30<br>(.28) | .45<br>(.31) | .40<br>(.35) |              |              |
| <i>SOC</i> | -.30<br>(-.08) | .20        | .49<br>(.25)   | -.59<br>(-.63) | .41<br>(.32) | .35<br>(.37) | .49<br>(.47) | .68<br>(.71) | .35<br>(.24) | .27<br>(.05) | .20<br>(.23) | .35<br>(.24) |              |
| <i>PSY</i> | -.53<br>(-.38) | .40        | .70<br>(.63)   | -.39<br>(-.36) | .58<br>(.34) | .53<br>(.24) | .65<br>(.35) | .63<br>(.40) | .52<br>(.35) | .61<br>(.45) | .64<br>(.52) | .43<br>(.36) | .43<br>(.23) |

주 1. ( ) 안은 홍창희 등(2001)의 N=2,386의 결과임

해 9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9개 타당도 지표 간의 상관 패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KPI-C-R-CRI의 14개 척도는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패턴을 타당성척도, ERS 척도, 임상척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타당성척도에서 L척도는 표준화성격진단검사의 타당성척도와 정적 상관( $r=.48$ )이 있었고 책임성( $r=.73$ ), 안정성( $r=.42$ )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 정적 상관인 반면에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특성을 측정하는 타당도 지표들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F척도는

표 5. 타당도지표와의 상관

| 타당도지표                    | KPI-C-R-CRF 척도 |      |      |      |      |      |      |      |      |      |      |      |      |      |
|--------------------------|----------------|------|------|------|------|------|------|------|------|------|------|------|------|------|
|                          | L              | ICN  | F    | ERS  | VDL  | PDL  | ANX  | DEP  | SOM  | DLQ  | HPR  | FAM  | SOC  | PSY  |
|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sup>a</sup>  |                |      |      |      |      |      |      |      |      |      |      |      |      |      |
| 타당성척도                    | .48            | -.01 | -.03 | .36  | -.19 | -.11 | -.12 | -.15 | -.04 | -.26 | -.27 | -.24 | .05  | -.14 |
| 우울                       | -.33           | .38  | .53  | -.61 | .44  | .37  | .59  | .71  | .51  | .28  | .28  | .39  | .54  | .53  |
| 불안                       | -.37           | .35  | .50  | -.58 | .48  | .30  | .57  | .66  | .58  | .38  | .38  | .36  | .52  | .59  |
| 안정성                      | .42            | -.34 | -.45 | .54  | -.47 | -.32 | -.54 | -.55 | -.48 | -.47 | -.46 | -.30 | -.34 | -.55 |
| 활동성                      | .05            | .01  | -.13 | .18  | -.13 | -.12 | -.08 | -.23 | .01  | .12  | .12  | -.08 | -.32 | -.01 |
| 사회성                      | .36            | -.38 | -.43 | .55  | -.50 | -.26 | -.43 | -.62 | -.36 | -.41 | -.36 | -.34 | -.55 | -.55 |
| 책임성                      | .73            | -.40 | -.40 | .60  | -.44 | -.29 | -.36 | -.50 | -.32 | -.57 | -.66 | -.43 | -.25 | -.55 |
| 사려성                      | .26            | -.09 | -.08 | .13  | -.16 | .08  | .14  | -.02 | .07  | -.05 | -.18 | -.09 | -.02 | .03  |
| 우월성                      | .43            | -.38 | -.45 | .57  | -.45 | -.31 | -.51 | -.59 | -.44 | -.29 | -.36 | -.35 | -.40 | -.46 |
| K-YSR <sup>b</sup>       |                |      |      |      |      |      |      |      |      |      |      |      |      |      |
| 위축                       | -.37           | .02  | .43  | -.47 | .34  | .33  | .59  | .60  | .43  | .25  | .36  | .31  | .56  | .56  |
| 신체증상                     | -.38           | .10  | .37  | -.35 | .16  | .27  | .38  | .47  | .65  | .33  | .38  | .17  | .27  | .49  |
| 우울/불안                    | -.46           | .07  | .57  | -.51 | .33  | .41  | .64  | .60  | .50  | .38  | .45  | .29  | .53  | .67  |
| 사회적 미성숙                  | -.41           | .04  | .60  | -.56 | .35  | .48  | .57  | .60  | .45  | .30  | .51  | .32  | .65  | .64  |
| 사고의 문제                   | -.37           | -.07 | .44  | -.34 | .26  | .31  | .50  | .44  | .45  | .32  | .42  | .30  | .39  | .61  |
| 주의집중문제                   | -.50           | -.01 | .54  | -.50 | .42  | .49  | .54  | .58  | .45  | .48  | .58  | .38  | .48  | .59  |
| 비행                       | -.43           | .05  | .44  | -.30 | .36  | .26  | .37  | .36  | .31  | .50  | .56  | .22  | .37  | .52  |
| 공격성                      | -.55           | .13  | .39  | -.44 | .42  | .39  | .39  | .46  | .36  | .60  | .63  | .23  | .28  | .59  |
| 내재화문제                    | -.47           | .09  | .55  | -.51 | .32  | .39  | .61  | .64  | .62  | .38  | .46  | .28  | .52  | .67  |
| 외현화문제                    | -.56           | .12  | .43  | -.46 | .45  | .39  | .43  | .48  | .39  | .62  | .67  | .24  | .32  | .63  |
| 총문제행동                    | -.56           | .06  | .59  | -.57 | .42  | .49  | .63  | .64  | .61  | .50  | .60  | .29  | .52  | .72  |
| 자기지각검사(유능감) <sup>c</sup> |                |      |      |      |      |      |      |      |      |      |      |      |      |      |
| 아동 우울척도 <sup>d</sup>     | -.58           | .26  | .61  | -.65 | .55  | .36  | .51  | .71  | .51  | .48  | .57  | .60  | .52  | .61  |
| 아동 불안척도 <sup>e</sup>     | -.66           | .19  | .32  | -.45 | .16  | .36  | .54  | .47  | .34  | .54  | .49  | .24  | .38  | .42  |
| 스펜스 아동 불안척도 <sup>f</sup> | -.35           | .12  | .53  | -.36 | .37  | .34  | .84  | .51  | .47  | .34  | .39  | .26  | .36  | .56  |
| 교우관계검사 <sup>g</sup>      | -.44           | .27  | .62  | -.57 | .41  | .24  | .35  | .57  | .43  | .56  | .41  | .54  | .53  | .55  |
| 가족관계척도(옹집력) <sup>h</sup> | .34            | .04  | -.42 | .38  | -.29 | -.10 | -.10 | -.32 | -.19 | -.25 | -.21 | -.55 | -.28 | -.15 |
| 아동지각 부부갈등척도 <sup>i</sup> |                |      |      |      |      |      |      |      |      |      |      |      |      |      |
| 빈도                       | -.48           | .18  | .42  | -.42 | .30  | .33  | .13  | .36  | .22  | .40  | .39  | .66  | .13  | .26  |
| 강도                       | -.49           | .29  | .49  | -.53 | .45  | .49  | .27  | .50  | .33  | .46  | .43  | .63  | .33  | .37  |
| 해결                       | .31            | -.08 | -.24 | .43  | -.24 | -.28 | -.07 | -.32 | -.13 | -.19 | -.19 | -.55 | -.20 | -.15 |
| 지각된 위협                   | -.46           | .39  | .52  | -.40 | .46  | .47  | .45  | .48  | .36  | .44  | .44  | .45  | .33  | .61  |

주 1. a:  $n=125$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9 이상이면 .05, .24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2. b:  $n=126$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1 이상이면 .05, .25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3. c:  $n=125$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2 이상이면 .05, .25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4. d:  $n=121$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6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5. e:  $n=125$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9 이상이면 .05, .32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6. f:  $n=124$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6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7. g:  $n=127$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24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8. h:  $n=128$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9 이상이면 .05, .25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주 9. i:  $n=124$ , 표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9 이상이면 .05, .24 이상이면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긍정적 측면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ERS 척도는 아동우울척도( $r=-.65$ ), 표준화성격진단검사의 우울( $r=-.61$ ), 불안( $r=-.58$ ) 척도 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아동의 자기자신에 대한 유능감 지각( $r=.75$ ), 책임성( $r=.60$ ), 우월감( $r=.57$ )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임상척도에서 VDL, PDL 두 척도는 다른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패턴이 매우 유사하였고 아동이 지각한 유능감, 우월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VDL, PDL 척도를 제외한 10개의 8개 임상척도는 동일한 영역을 측정하는 각각의 타당도지표들과는 .50 이상의 정적 상관이 있고, 상반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타당도지표와는 -.50 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ANX 척도는 스펜스 아동불안척도( $r=.84$ ), K-YSR의 우울/불안( $r=.64$ ), 표준화성격진단검사의 우울척도( $r=.57$ )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안정성( $r=-.54$ ), 사회성( $r=-.43$ ) 척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DEP 척도는 아동우울척도와 표준화성격진단검사의 우울척도( $r=.71$ ), 유능감 지각( $r=-.64$ )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SOM 척도는 K-YSR의 신체증상( $r=.65$ ), DLQ 척도는 K-YSR의 공격성( $r=.60$ ), 비행( $r=.50$ ), HPR 척도는 K-YSR의 외현화문제( $r=.67$ ), 공격성( $r=.63$ ), 주의집중문제( $r=.58$ ), FAM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부부갈등의 빈도( $r=.66$ )와 강도( $r=.63$ ), 가족간 응집력( $r=-.55$ ), SOC 척도는 K-YSR의 사회적 미성숙( $r=.65$ ), 유능감 지각( $r=-.61$ ), 교우관계검사( $r=.54$ ), PSY 척도는 K-YSR의 모든 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 논 의

아동 자신이 경험하는 내면적 세계나 심리적

현상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외부 평정자가 관찰하기 어렵고 부모의 보고나 평정은 아동의 정신병리와 성격 같은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Achenbach 등, 1987) 부모는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적으로 드러난 행동문제, 청소년 자신은 우울/불안/위축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자각하게 된다(하은혜 등, 1998). 따라서 아동의 임상평가에서는 개인의 행동관찰과 인지적 평가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보고, 부모나 교사같은 외부 평정자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종합적 임상평가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부모평정용으로 개발된 KPI-C-R의 문항을 아동이 자기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자기보고형을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봄으로써 자기보고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부모평정용 문항을 현직 초등학교사와 연구자가 자기보고형 문항으로 수정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12개 표본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평정용에서 분류된 척도별 문항을 근거로 내적 합치도를 고려하여 자기보고형(CRF)의 척도별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6개 척도에서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이 낮고 내적 합치도를 저하시키는 13문항과 문항의 의미가 동일하거나 빈도척도 구성에서 제외된 4문항 등, 총 15개 문항을 제외한 164문항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ICN 척도는 문항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40 이상이면서 문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지 않고 문항의 의미가 상반되거나 매우 유사한 문항쌍을 찾아내어 수검자의 반응의 일치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들의 반분신뢰도는 ICN척도를 제외하고 .62~.85의 범위였고 KPI-C 부모평정용의 결과(홍창희 등, 2001)와 비교했을 때 4개 척도(DLQ, FAM, L, SOC)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았다. ICN척도를 제외한 내적 합치도는 .65~.85이었고 KPI-C 부모평정용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3개 척도(DLQ, L, PDL)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평정용과 본 연구의 아동보고형에서 도출된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를 비교해보면 우울, 불안, 정신병적 증상처럼 아동이 내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한 ANX, DEP, PSY 척도는 부모평정용보다 높고 비행이나 사회성과 같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DLQ, SOC 척도는 아동보고형보다 부모평정용에서 높았다. 이처럼 내재화된 문제와 외현적 문제를 보거나 평가할 때 아동과 부모의 신뢰도 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동과 부모가 보다 신뢰롭게 평정하는 문제영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보고형을 사용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아동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4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한 결과 ICN척도를 제외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5~.86로 높았는데, 이는 아동보고형의 척도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따라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척도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RS, ANX, DEP, SOM, FAM, SOC 등 6개 척도점수는 남녀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L척도점수는 여학생, ICN, F, VDL, PDL, DLQ, HPR, PSY 등 7개 척도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았다. 반응의 비밀치성을 평가하기 위한 ICN척도점수는 연령 또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F척도점수는 5,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4

학년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자기보고형을 표준화할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별도의 기준점수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5, 6학년보다 4학년에서 ICN, F 척도점수가 높다는 것은 저학년에게 자기보고형 검사를 실시할 때 반응의 타당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DLQ척도점수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더 높았고 4학년과 6학년에서는 남학생이 높았으나 5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5학년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정자간 일치도, 척도간 상관 및 여러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아동의 평정자간 상관은 ICN척도를 제외한 13개 척도점수 모두 유의미하였고 .15~.53, 평균 .37이었다. 이러한 일치도는 CBCL과 YSR을 사용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결과(Achenbach et al., 1987)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간 평균 일치도 .60보다는 낮지만 아동과 다른 평가자들 간의 평균 일치도 .22보다는 높았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특이한 것은 10개의 임상척도 중 DEP, DLQ 척도의 일치도가 각각 .24와 .15로 다른 척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앞에서 이 두 척도의 반분신뢰도와 내적 합치도가 부모평정용과 아동보고형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지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내면화된 문제와 외현적 문제는 평정자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르고 평정자간 일치도가 다르다는 것은 평정자간에 일차적으로 지각하고 더 엄밀하게 평정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하은혜 등, 1998, Achenbach et al., 1987; Achenbach & Rescorla, 2001) 아동평가에서

아동의 자기보고와 외부 평정자에 의한 평정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PDL척도의 경우, 부모평정용과 아동보고형의 반분신뢰도는 모두 .62, 내적합치도는 .68, .65, 평정자간 일치도는 .18로 두 신뢰도 계수와 평정자간 일치도가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결과는 아동보고형 PDL척도의 문항이 “어릴 때 나는 뭘 하든 서투른 편이었다고 한다”처럼 현재보다 과거 기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보고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고형 PDL척도는 그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부모평정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척도점수간 상관을 구한 결과 부모평정용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각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신병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매우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척도는 ERS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모든 임상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DLQ, HPR 척도와 상관이 높았는데, 이 결과는 L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미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ERS척도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수검자가 문제행동을 부인할 경우 L척도점수가 높아져서 임상척도점수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적 지침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F척도는 ERS척도와는 부적 상관, 임상척도와는 .49~.70 범위의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F척도가 정상집단에서 시인빈도가 낮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정신병리적 특징을 반영하는 임상척도 점수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신병리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적응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ERS척도와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

로 볼 수 있다.

ERS척도는 임상척도들과 -.30~-.72의 범위의 부적 상관이 있었고 특히 DEP, SOC, FAM척도와 상관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정신병리와 자아탄력성은 상반되고, DEP척도가 부적응의 예민한 지표이며(홍창희 등, 2001), SOC, FAM 척도와 각각 -.59, -.57로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대인관계적 지지자원이 있을 때 정신병리나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임상척도에서는 (1) VDL, PDL, (2) ANX, DEP, PSY, (3) DEP, SOC (4) HPR, DLQ, (5) SOC, FAM 척도들 간에 상관이 높았다. 이러한 상관패턴은 임상척도들이 측정하는 정신병리의 공존질병을(comorbidity)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L, ERS 척도는 KPI-C-R-CRF의 임상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K-YSR과 표준화 성격진단검사에서 측정하는 정신병리 척도들과는 부적 상관, 책임성, 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지각된 자기 유능감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F척도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ANX, DEP, SOM, DLQ, HPR, FAM, SOC, PSY 척도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타당도지표들과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이론적으로 상반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도지표들(예컨대, 정서적 안정성, 책임성, 사회성 등)과는 중간 정도 이상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패턴을 전체적으로 볼 때 KPI-C-R-CRF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는 KPI-C 개발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은 여러 타당도지표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봄으로써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정보를 확장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고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함으로써 아동의 자기보고와 부모평정 결과와 같이 고려하는 상호보완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뿐 그 보다 더 저학년 인 아동과 중학생과 같은 원래 KPI-C가 의도했던 대상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연구하지 못했고, 14개 척도 중에서 ICN, VDL, PDL 등, 3개 척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타당도지표와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생 및 임상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고 아동에게 비밀관성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새로이 구성된 ICN 척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알아보고, 언어와 운동 발달을 측정하는 매우 구체적인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함으로써 VDL, PDL 척도의 타당도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척도별로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각 척도의 구성요인을 경험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45-358.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569-581.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 214-234.
- 김근향, 홍창희, 김지혜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 (KPI-C) 프로파일을 통해 본 학습장애아동의 정성과 행동특성의 하위유형분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89-298.
- 김소야자 (1982).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와 정신질환자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윤희, 황순택(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343-362.
-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조선미 (인쇄중).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KPI-C-R).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29-443.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92).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실시요강: 초등학교 고학년용.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지연, 황순택, 이수경(2001). 한국아동인성검사(KPI-C)의 자아탄력성 척도(ERS)의 타당도 연구. 정신건강연구, 20, 213-225.
- 장은진, 강민아, 정철호 (2001).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에 대한 일차적 변별도구로서 한국아동인성검사의 유용성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7, 261-267.
- 정욱, 홍창희 (1997). 아동과 청소년의 한국아동

- 인성검사(KPI-C) 프로파일 유형: 정신과 표  
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99-311.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5.
- 진태경 (2002).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제6차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주교육대  
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따돌  
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12, 94-102.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  
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 691-702.
- 하송미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의 ADHD척도 개  
발과 타당도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석사학  
위논문.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  
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  
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3-12.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Fitzerald, H. E., Zucker, R. A., Maguin, E. T., &  
Reider, E. E. (1994). Time spent with child  
and parental agreement about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9, 336-338.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Kovacs, M., & Beck, A.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Schulerbrandt & J. Raskin  
(Eds.),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pp. 1-25). New York: Raven Press.
- Lachar, D., & Gruber, C. P. (1992). *Personality  
Inventory for Youth(PIY)*.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Moos, R., & Moos, B. S. (1981).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 271-280.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BASC)*.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s.
- Richters, J. E. (1992). Depressed mothers as  
informants about their children: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for distor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85-499.
- Spence, S. H. (1998). A measure of anxiety symptoms  
among childre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545-566.

원고접수일 : 2004. 0. 00

게재결정일 : 2004. 3. 24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PI-C-R-CRF

Sang-Hwang Hong

Departmen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modified the items of revised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parent-rating form (KPI-C-R-PRF) into children-report form (KPI-C-R-CRF) and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4-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 $N=1,575$ ) administered the KPI-C-R-CRF. Half-split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f 13 scales excluded ICN scale were .65-.85, .62-.85, respectively. Test-retest reliability tested on 129 students, .75-.86, was high. To test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participants were separated into ten samples and administered nine validity indices and the KPI-C-R-PRF. Both validity were very high. Finall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 KPI-C, reliability, validity